

# 현 의장 프리미엄 vs 소장파 '합종연횡'

## ■광주 시의회 선거 D-2

### 5명 등록...오늘 토론회, 11일 정견 발표

## 강박원 현 의장 '토론회 불참' 밝혀 논란

광주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의회를 이끌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8일 하반기 의장 후보자를 마감한 결과 강박원(72·광산 1) 현 의장을 비롯, 나중천(65·남구 2), 유재신(49·광산 2), 이정남(52·광산 3), 이철원(50·북구 5) 의원 등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부의장 후보로는 김동식(70·서구 2), 조호권(48·북구 4), 진선기(44·북구 1), 양해령(46·동구 1) 의원이 등록했다.

그동안 의장 선거 구도는 후보간 혼전 양상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아 1, 2위 후보를 놓고 결선 투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강 의장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일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서 관세가 급변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현 의장의 프리미엄에다 집행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강 의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시의회 변화, 개혁을 내세우는 합종연횡 움직임이 있어 변수로 점쳐지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 2년간 특별한 흠집

없이 의회를 이끌어온데 대한 평가를 받았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나중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 역할에서 관세가 급변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현 의장의 프리미엄에다 집행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강 의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시의회 변화, 개혁을 내세우는 합종연횡 움직임이 있어 변수로 점쳐지고 있다."

유재신 의원은 교황식 선출 방식의 개선, 의장 후보자 공개 검증 등을 주도하면서 "더 이상 '식물 의회'라는 비난을 받을 수는 없다"며 의장직에 도전하고 있다.

이정남 의원과 이철원 부의장도 각각 "의회가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돕겠다", "5대 전반기에 추락된 의회상을 쇠신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등 힘을 쏟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들 출마자들은 9일 오전 11시 CMB 광주방송 스튜디오에서 광주 YMCA 등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시민 대표로서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게 된다.

또 의장 선거 당일인 11일에는 광주시의회 제 170회 정례회에서 각 후보별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한 뒤 전체 의원들의 투표로 의장에 선출된다.

한편, 강박원 현 의장은 "정견발표가 있는데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박주선 최고위원이 8일 오전 민주당 광주 동구지역위원회 당원·당직자들과 함께 국립 5·18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똥 문화도시 등 지역 현안 최우선 쟁길 것”

### 박주선 최고위원 “DJ 이후 우뚝 선 정치인 되겠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쟁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수양과 노력을 통해 DJ 이후 계승자가 없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우뚝 선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광주·전남의 미래

를 좌우할 국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상임위원회도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문화관광위로 바뀌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 등원 문제와 관련, “국회와 정당은 충돌이 돼서는 안되며 충돌이 제기한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

그는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 문제에 대해 “본인들이 원한다면 민주당에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 만큼 북당시켜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만간 열릴 예정인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 동구지역위원회 당원·당직자들과 함께 국립 5·18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광주·전남 기초의회 잇단 ‘의정 파행’ 눈총

### 민주당 싸늘이에 의원 빼가기·의회직 나눠먹기 여전

### 화순군의회도 “지역 국회의원이 의장단 낙점” 파문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하반기 의장단 자리다툼으로 원구성을 위한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의장단 선거 때마다 자리 나눠먹기, 편가르기 등의 파행이 거듭되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경우 없는게 낫다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시·군의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일당 독점체제가 가져온 폐단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구의회와 전남 22개 시·군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에 나서면서 이날 현재 광주 4개 의회와 전남 17곳이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광주 남구의회는 구 열린우리계와 구 민주계가 의장자리를 놓고 맞서는데다 의원들간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지난 7일 의장단을 선출키로 했던 일정이 미뤄져 여지껏 하반기 원(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원구성을 마친 서구의회는 새로 선출된 의장단의 자질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사실상 내분 상태다.

전남지역에서는 나주시와 화순군, 신안군의회 등이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계파간 갈등, 특정 정당 상임위 독식에 따른 반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경우 지난 7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장 선출 등 의장단 구성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사이에 원구성 갈등

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 측은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 등 5개 자리 가운데 무소속 측에 상임위원장 1석을 제시했으나 무소속 측은 부의장직 추가를 요구하며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전격 입당하고 무소속 측은 ‘의원 빼가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순군의회도 지역 국회의원의 의장단 사전 낙점설이 불거지면서 무소속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서 반발하는 등 원구성이 무산됐다.

화순군의회 의장단 선출에 대한 국회의원 개입 문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국회의원을 직접 거론,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신안군의회도 지난 3일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계파간 갈등으로 특정 후보가 등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파행의 근본 원인은 지난 2006년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부활하면서 정당별 또는 같은 정당내 계파별 갈등이 의장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남해안 시대 의원 연구 모임’ 출범

### 김성곤·정의화 의원 공동대표

민주당 김성곤(여수갑) 의원과 한나라당 정의화(부산 중·동)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남해안 시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이 9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연구 모임에는 28명의 여·야 의원

을 비롯해 김재철 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과 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

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발족식에서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 ‘남해안의 미래에 대하여’를 주제로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남해안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화합, 여·야 상생, 국가정책개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정세균 대표 체제 ‘새틀짜기’

### 지역·계파 안배, 386 요직 배치...노·장·청 조화 이뤄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핵심 진영은 계파·지역별 안배와 노·장·청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8일 확정된 당직 인선의 최대 볼거리는 사무총장에 4선의 여성의원인 이미경 의원이 기용된 점. 정당의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여성의원 기용된 것은 7·6 정당대회 직전 임시로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주 전 의원을 빼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통상 3선 이하 의원이 맡아왔던 사무총장을 4선이 맡은 것도 시선을 끈다. 이 사무총장은 중량감을 갖추고 당을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기용에는 당내 재야파와 영남권 배려 측

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것은 정책야당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포석과 함께 ‘충청권 겨안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앙일보 경제부국장 출신인 박정림은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여성의원 기용된 것은 7·6 정당대회 직전 임시로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주 전 의원을 빼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당직 인사에서는 또 386그룹이 요직을 차지했다.

충북 정국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활약했던 광주의 강기정 의원은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정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됐으며 손학규 대표

시절 원내대변인을 맡아 대외공세의 최전선을 맡았던 최재성 의원은 당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정 대표의 신임이 두터운 최측근 인사인 오영정 전 의원은 당의 ‘브레인’ 역할을 맡는 한반도전략연구원 부원장 또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에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병헌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여성 초선인 김유정 의원을 공동 대변인에 임명한 것은 정치권 전반의 ‘여성 대변인’ 강화 추세에 부응하는 동시에 구 민주계에 대한 전략적 배려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당의 싱크탱크인 한반도전략연구원장은 수도권 3선 의원으로 손학규 전 대표와 가까운 김부겸 의원이 맡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AINAN**

무안 → 하이난 (섬예) 직항

제주 4박 5일 4박 5일 ₩ 899,000~

4명부터 출발가능 ₩ 999,000~

무안 → 장사 (장가계) 직항

제주 4박 5일 4박 5일 ₩ 649,000~

4명부터 출발가능 ₩ 899,000~

제주 4박 5일 4박 5일 ₩ 649,000~

4명부터 출발가능 ₩ 899,000~

www.hainan.co.kr

226-6070